

야권 단일후보, 여당 인기 넘을 수 있을까

광주 서구청장 2파전 구도

민주 서대석 vs 무소속 임우진

둘 다 '음주운전' 전과 악재

6·1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야권 단일화'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현직 프리미엄을 지니고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무소속 임우진 서구청장의 돌풍 여부가 이번 광주·전남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서대석(57) 전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평화당 정책동인 이성일(53) 정책위 부의장, 관료 출신 무소

속 임우진(65) 서구청장의 3자 대결이 예상됐지만 지난 25일 이 부의장과 임 구청장 사이에 임 구청장으로서의 단일화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이날 "저와 임 후보는 민주당의 독주 등을 견제하는 것이 서구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가기로 했다"고 단일화 사유를 밝혔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 내에서도 당달아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두 후보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서구청장 선거는 여당인 서대석 후보와 무소속 임우진 청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 후보는 노동운동을 하던 중 정계에 입문, 국회의원 비서관과 서구의회 전문위원,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노무현대통령 인사수석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0년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400여 표 차로 낙선했고, 2년 뒤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야권연대 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에게 양보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임 후보는 행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북구 부구청장과 행정자치부 실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등을 지낸 정통 엘리트 관료다.

이번 서구청장 선거는 고공지지를 누리는 여당의 프리미엄과 야권 단일화를 이끈 현직 구청장의 프리미엄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서구청장 선거는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들 후보는 '음주운전'이라는 악재를 안고 싸워야 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서대석 후보는 이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음주운전 이력 3회가 알려져 논란을 빚었고, 임우진 후보도 음주운전 2차례 경력 탓에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야권 단일화에 따른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며, 단일화에 따라 서구청장 선거가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전남 정치, 여성에겐 높은 '유리천장' 전체 21% 불과...자치단체장 영암군수 박소영 후보 유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광주와 전남지역 여성후보는 모두 20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후보 970명 가운데 21.5%를 차지했다. 임후보한 5명 중 1명 꼴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7.7%와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었지만, 대부분 광역·기초 교육감 후보, 국회의원 재선거 중 여성 후보는 단 한명도 없다. 자치단체장 후보도 광주의 경우 5개 구청장 후보 14명 모두가 남성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후보 73명 중 여성은 영암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가 유일하다.

남성 집중 현상은 전남지역 광역·기초 의회 선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광주 시의회 후보 47명 가운데 여성은 18명

(38.2%), 전남도의회 후보 115명 중 여성은 5명(4.3%)이었다.

광주 5개 구 의회 의원 후보 118명 중 28명(23.7%), 전남 22개 시·군의 의회 의원 후보 455명 가운데 43명(9.4%)이 여성이다.

광역시·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여성 후보 비율은 20~30%대인 반면 전남은 한자릿 수대에 불과해 광주와 전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성후보 비중은 비례대표 후보군에서 많았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광주시의회 12명 가운데 10명(83.3%), 전남도의회 16명 가운데 11명(68.7%)이 여성이다. 기초의회에서는 광주 5개 구 의회 29명 가운데 27명(93.1%), 전남 22개 시·군 의회 72명 중 66명(91.6%)이 여성 비례대표 후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代 이은 도예가·헬스클럽 관장... "다양한 직군 목소리 대변할게요"

후보자 이색직업 눈길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에 뛰어들던 도공, 시인, 농민 등 다양한 경력의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진군의회 비례대표 김보미(여·28)씨는 직업란에 강진탐진청자 대표라고 표기했다. 김 후보는 청자명인 아버지 김정진씨에 이어 2대째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예술인이다. 강진 청자에 자개와 옷칠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새롭게 접목해 만든 청자커피 핸드드립세트는 선보여 2013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청자공모전, 전라남도공예품대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3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청자의 매력에 빠진 젊은 예술인이 향후 어떤 빛깔로 지방자치를 빛어나갈지 지역 내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소속 이육재 광양시장 후보는 자신의 직업을 발명가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군의 후보들이 대거 도전해 생활정치 실현에 나섰다.

광주 서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에도 도전하는 무소속 강태욱 후보는 건설기계 조종사로 직업을 표기했다. 민주당 신정옥(목포 바) 후보는 헬스클럽 관장, 평화당 최치중(여수 나) 후보는 체육관장이다. 민주당 김영철(여수 바) 후보는 어민, 무소속 위계홍(여수 바) 후보는 농업으로 직업을 표기해 농어민이 대결하게 됐다. 해남 제2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심재선 후보도 직업을 이장으로 썼다.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 특성상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직업으로 나타낸 후보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녹색당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김주혜 후보는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이다. 장애 여성 공감합창단 '일곱 빛깔 무지개' 노래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밖에 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노리는 민주당 한연남 후보는 조리사다. 민주당 윤현식(목포 라) 후보는 한국 미술협회 목포지부 회장,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운영위원 등을 맡은 화가다.

무소속 이철태(해남 다) 후보는 시인, 여수 기초의원 비례대표 평화당 정수미 후보는 강사·시인으로 직업을 내세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평화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평화당 광주시당은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천정배 의원, 선대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상임고문단장에는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을 각각 임명하고 10개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

순천시장 선거 3자 구도로

단일화 파기...민주당 허석·무소속 순훈모·이창용 대결

무소속 후보 단일화 합의에 따라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순천시장 선거는 이창용(68) 후보가 합의를 깨고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3자구도가 됐다.

27일 순천시정가에 따르면 순천시장 선거 무소속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25일 ARS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순훈모(48)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후보단일화에는 양효석·윤병철·이창용 후보가 합의했으나 이 후보는 막판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다. 양효석·윤병철 후보는 단일 후보인

순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단일화에 불복한 이 후보는 "단일화 과정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불공정했다. 불공정만 단독 행동하겠다고 예고 했었다"면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다. 후회없는 선거를 치러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와 무소속 순훈모 후보, 무소속 이창용 후보 등 3자 대결로 진행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목포·담양, 지역 최초 4선 단체장 나올까

다선 도전하는 후보들

6·13 지방선거에서는 초선, 재선을 넘어 '3선, 4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광주·전남에서 5명이 나왔다.

3선 도전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 등 3명이다. 장휘국 후보는 2010년 교육감 당선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광주교육을 책임졌다. 3선 교육감으로 향후 4년간 광주교육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섰다

지역 최초 4선 단체장 탄생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와 같은 당 최형식 담양군수 후보가 여기에 도전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는 현직 단체장들이 당내 경선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와중에도 공천을 받아내 3선 고지 선점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는 재선 연임 도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소속 3선 도전'이기도 하다. 민선 4기 무소속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했다가 민선 6기 장성군수로 다시 당선됐기 때문이다.

지역 최초 4선 단체장 탄생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와 같은 당 최형식 담양군수 후보가 여기에 도전한다.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 20년후 기부채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